

10 오피니언

사설

‘공간’ 경계 허물어 효율성 높여야

취업난에 비례해 학업 성적의 중요도도 올라가고 있다. 집안의 경제력, 부모의 직업까지 스펙이 돼버린 사회에서 좋은 학점은 본인의 단순한 노력에 의해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자습 환경과 관련해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학교의 교사시설확보율은 115%가 넘는다. 충분치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수준이다. 이에 상응하듯 대부분의 단과대학은 자체 열람실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단과대학에서는 열람실은 물론이고 온전한 자습 공간마저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열람실이 없는 단과대학 소속 학생들은 하루빨리 자습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과대학마다 온전한 자습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모든 단과대학의 위치를 따져 봐도 중앙도서관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 각 단과대학 내 자습 공간이 굳이 필요하냐는 의견일 것이다. 충분히 지적할 만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짧은 시간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하는 요즘 대학생에게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자습 공간은 포기하기 힘들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강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민하고 많은 이들은 공강 시간을 자습의 시간으로 활용하려 한다. 학기 초부터 단과대학 열람실이 가득 차는 현상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단과대학에 자체 열람실이 없는 학생들의 어려움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신문이 만난 많은 학생들은 공강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서관 혹은

근처 카페까지 소요되는 시간, 돈, 에너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자습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무의미하게 시간을 축내는 일이 적지 않았다.

자습 공간이 부족한 단과대학은 공간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다. 학생 1인당 면적을 따져봤을 때, 일부 단과대학의 공간 활용에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단과대학별로 보유 공간의 편차가 큰 것도 사실이기에 이들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는 고질적으로 대두돼온 ‘공간 문제’가 이번 문제의 시작이라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

가득이나 부족한 공간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은 편차 큰 단과대학별 공간이 공유마저 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공간 공유의 체계도 부족하거나 단과대학 내 공간이 각 단과대학만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인식도 원인 중 하나

이다. 경영대학에서 열람실을 소속 단과대학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예약 시스템을 구축한 것 역시 이러한 원인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 캠퍼스에는 공간 부족과 과잉이 공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공간의 비효율은 궁극적으로 교육환경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학은 학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단과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공간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신규 공간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배타적인 공간 사용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캠퍼스의 공간은 구성원 모두의 공간이다. 근본적인 공간 문제가 해결된다면, 열람실 부재 문제 역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세시봉

여우주연상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할리우드 역사에서 아시아계 배우는 늘 변방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양자경 배우는 당당히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95년 아카데미 역사에서 남녀 주연상 부문 수상을 거머쥔 아시아계 배우는 이전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만큼 아시아계 배우의 할리우드 진출은 오랜 기간 소요된 힘든 여정이었다.

아시아계 배우의 할리우드 진출을 제약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이다. ‘메이즈 러너’에서 주연을 맡았던 이기홍 배우는 “아시아계 배우가 상점 주인이나 네일 살롱에서 일하는 여성, IT 업계에서 일하는 남자를 연기하길 원한다면 맡을 수 있겠지만, 주연을 맡을 기회는 거의 없다”는 말을 남겼다. 이는 그가 아시아계 배우로서 지금까지 할리우드에서 어떠한 차별적인 시선을 받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으로 작품상을 차지하며 아카데미의 역사를 새로 썼다. 비영어권 영화인 ‘기생충’이 작품상의 영예를 가져간 것은 아카데미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아시아계 영화의 성공 사례와 수상 소식이 늘어나면 아시아계 영화인에게는 자연스레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다. 전문가들은 양자경의 성취에 대해 서구에서 입지를 다져왔던 여러 아시아계 영화인들의 노력도 한몫했다고 분석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랫동안 인종차별적 시선에 매몰돼 있던 ‘오스카’의 기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아시아계 배우들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그들만의 이야기를 연기하게 된 배경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양자경 배우의 여우주연상 수상이 할리우드에서 ‘아시아 무브먼트’를 제대로 일으키길, 인종을 넘어선 보편적인 이야기의 힘이 레드카펫 끝까지 도달할 수 있길 소망해본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안전한 보금자리

안전불감증

홍지민 기자
jimin4249@khu.ac.kr



“비용은 저렴하고 시설이 좋아 만족도 높은 기숙사”, “세화원 구성원 모두는 기숙사생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롭게 변화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학교 행복기숙사와 세화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인사말이다.

많은 학생이 보금자리를 떠나 타지 혹은 타국의 기숙사에서 대학 생활을 보낸다. 학생들은 입사한 순간부터 기숙사를 ‘집’이라는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소방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면 학생들의 안전은 불투명해진다.

우리학교 기숙사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추고, 화재 대피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법적 사항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 학내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안전에 있어서 정도(程度)는 없다. 학교는 사소한 결함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어느 하나의 장치도, 훈련도, 매뉴얼도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화재 대피 훈련에 능동적이고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설마’하는 안일한 마음에서 사고의 불꽃은 피어오른다. 모두의 노력이 모여야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는 화재란 없다. 화재는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우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경각한다. 우리에게 깊숙이 자리 잡힌 안전불감증에 벗어나 올바른 안전의식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숙사는 단순히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을 넘어 대학 생활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안전에 대한 방어적인 습관을 갖췄다면 우리의 소중한 공간이자 울타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양여진

만평 기숙사의 역할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동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2-961-0093~5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디